



일용잡화 메이커의 공동물류 시스템

Joint Distribution System Collaborating With Daily Goods Maker

吉川清 / 라이온(주) LOCOS추진부 주임

1. 서두

일용잡화 업계의 취급 상품 내용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치약·세제·제지 용품 등으로 대표되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비재”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는 데 익숙한 용품”이다. 따라서 ‘양품염가(良品廉價)·안정공급’이 당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사명이다.

당 업계의 주요 유통 경로는 메이커→도매업→소매업이며 각각 <양품염가(良品廉價)·안정공급>을 위해 항상 “물류의 합리화·효율화”를 경영과제의 하나로서 다양한 시책을 연구해 내고 있다. 한편 당 업계의 유통환경은 도·소매업의 통폐합·광역화 외자계 기업의 참여 확대 등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한층 더 물류에 대한 합리화·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배기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 문제 등 물류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다.

여기서는 상기 과제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인 “일용잡화 메이커의 공동물류 시스템”에 대해 서술했다.

1. 물류 공동화 경위

1-1. 정보의 공동화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을 계기로 동년 8월 일용잡화업계의 EDI 서비스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VAN 운영회사 (주)프라넷트가 당사를 비롯한 일용잡화 메이커 8사와 IT 기업 (주)인텍크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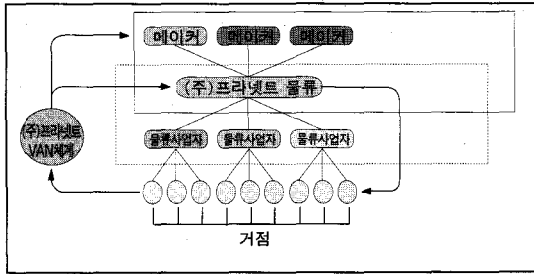
이 (주)프라넷트 설립의 근거에 흐르는 사상은 “정보 시스템은 인프라이며 동업경합 업체라 해도 이것을 공유하여 보다 고차원의 경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 프라넷트를 설립함으로써 일용잡화 업계의 정보 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다음 단계로서 일용잡화 업계의 물류공동화(메이커 공동물류)의 검토가 개시되었다.

1-2. 물류의 공동화

메이커 공동 물류의 목적은 종래 각 메이커가 단독으로 해 왔던 도매점으로서의 배송을 공동화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림 1) (주)프라넷트 정보 인프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메리트를 추구한다.

① 공동배송 실시에 따른 차량적재율의 향상 (코스트 감소), 차량대수 삭감(배기가스·교통 체증 감소)

② 배송량의 평준화, 계획적인 배송

③ 정시 일괄납품에 따른 도매업자의 수하업무 효율화

해당 검토는 중부 지역(참가 메이커 4사), 큐슈 지역(참가 메이커 13사)에서의 공동 물류 시행에서 시작되어 (주)프라넷트 출자기업 8사에 의한 공동물류연구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신사회설립준비실”에서의 개업준비를 거쳐 1989년 8월 (주)프라넷트 및 당사를 비롯한 일용잡화 메이커 10사(이 중 6사는 (주)프라넷트의 출자 기업)의 출자 하에 프라넷트 물류(주)가 설립되었다.

프라넷트 물류(주)는 메이커 공동물류 사업의 관리·운영 및 물류정보 시스템·물류기술의 개발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며 메이커(發荷主)·도매상(着荷主)·물류전문업자 사이에서 공동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거나이저

(표 1) 고능력 SCM자동창고 표준 지표 (2001년 12월)

	참가수	취급	월간배송량	배송선수
북해도사업부	13사	3,300	350,000c/s	3,000
북해사업부	9사	2,600	400,000c/s	3,000
중부사업부	6사	2,100	700,000c/s	7,000
구주사업부	8사	2,700	600,000c/s	5,000

(Orgerniz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만든 창고·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보관·배송지 일련의 업무를 물류전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 근거에 흐르는 사상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창고·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효율성이 좋은 부분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부 업자에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업전개 상황은 [표 1]과 같다.

2. 공동물류 시스템의 개요

2-1. 물류정보 시스템

프라넷트 물류(주)가 실시하는 공동물류 시스템의 특징은 당사가 도입하고 있는 물류정보처리 시스템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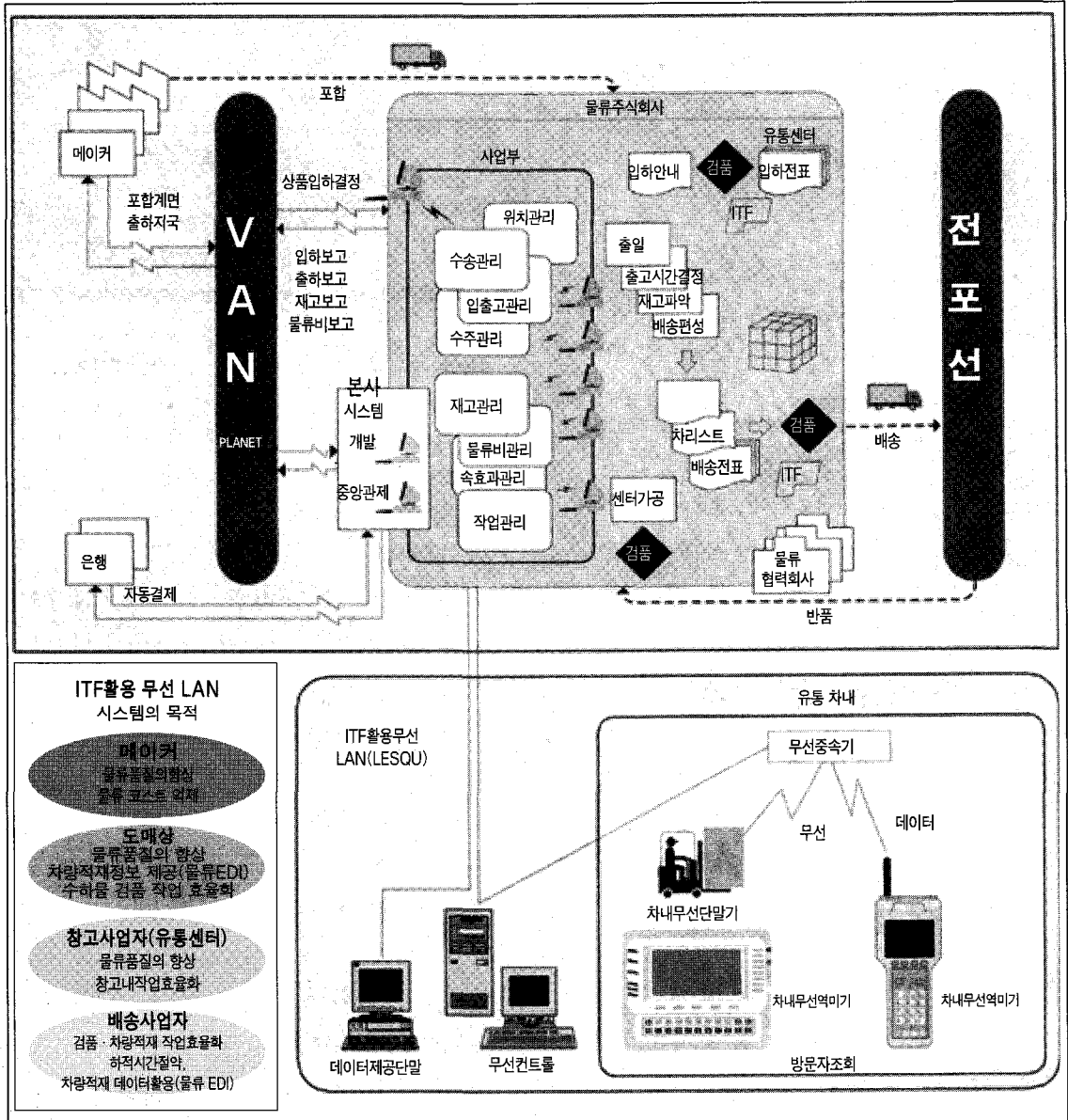
그 최대의 특색은

① 프라세트 VAN을 매개로 한 데이터 교환 기능(세큐리티 기능 보유)

② 작업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능(배차편성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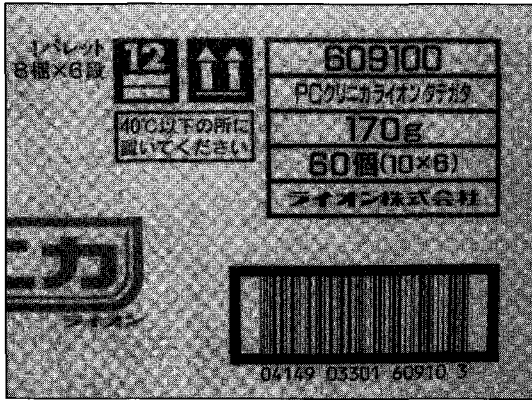


(그림 2) 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능 시스템



※ LESQU = Labor Energy Saving Quality Up System

[사진 1] 파렛트 외장 필수항목



스택 · 로케이션 관리 시스템 · ITF 활용무선 LAN 시스템)이다. [그림 2]는 그 개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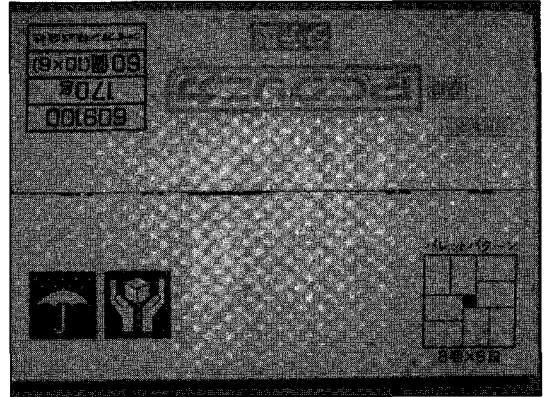
2-2. 요금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과 함께 요금 시스템에도 프라넷트 물류(주) 공동물류 시스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당사의 요금체계는 <합리화를 유도하는 요금체계>를 기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으며 창고 요금(보관료 · 입출고하역료) · 배송요금과 함께 표준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요금을 옵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옵션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써 메이커로부터 프라넷트 물류(주) 각 사업부로 상품을 보급할 때에 파렛 타이즈한 수송과 그렇지 않은 수송과는 입고하역요금에 격차를 두고 있다. 외장 측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수로 한다. [사진 1]참조

- ① 상품 기호
- ② 상품 명칭

[사진 2] 파레타이즈 패턴 표시



- ③ 상품 규격
 - ④ 1c/s당 상품입고수
 - ⑤ 메이커명
 - ⑥ 팔레트로 상품을 쌓을 때 단수
 - ⑦ 표준물류 심벌 코드(ITF-16)
- 외장 천장면에는 파레타이즈 패턴(T11R에서의 패턴)을 표시한다. [사진 2]참조

3. 공동물류의 운영 개요

3-1. 운영 원칙의 명확화 · 공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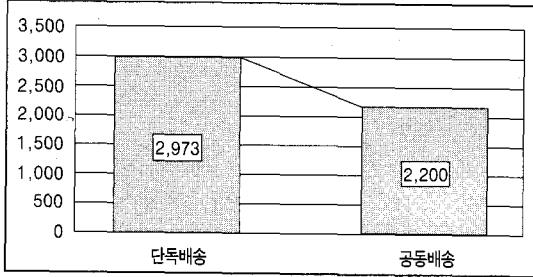
공동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함께 운영이 큰 포인트이다.

아래는 프라넷트 물류(주)의 운영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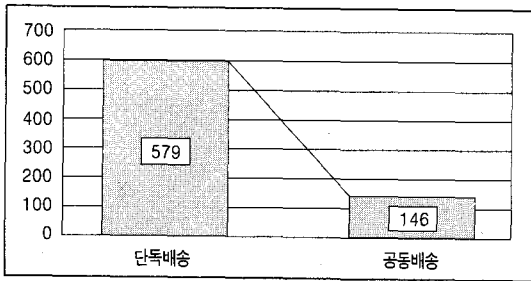
- ① 공존공영의 원칙
- ② 이기주의 배제의 원칙
- ③ 공평의 원칙
- ④ 합리화 추진의 원칙
- ⑤ 비밀 엄수의 원칙



[표 2] 1988년 중부지구 실적



[표 3] 2001년 북해도사업부 배송선 대수두 세계 사업소 배송실적



⑥ 자원상호 활용의 원칙

프라넷트 물류(주)는 1) 본래, 경합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출자한 회사 2) 메이커 · 도매상 · 물류전문업자 간의 오거나이저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운영원칙의 설정과 관계자 간의 공유화가 필수이며 그러한 것이 없이는 공동물류가 존재해 나갈 수 없다. 당사에서는 상기의 운영원칙을 단순한 슬로건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 침투시켜 실천하고 있다.

3-2. 표준화

프라넷트 물류(주)가 공동물류 운영에서 중시

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표준화”이다. 종전에 각 메이커가 개별적인 장치 · 시스템 · 운영에 의해 실시해 왔던 물류를 공동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는 필수이며 또한 “표준화”를 실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공동물류 성공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① 데이터 내용 · 전송 수단의 표준화
- ② 통일 전표 채용
- ③ 화물운반대의 표준화(T-11R)
- ④ 상품외장 표시 내용의 표준화
- ⑤ 표준물류 심벌 코드의 추진(ITF16)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주로 당사 및 출자회사 · 참가 메이커로 구성되는 각종 전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1][사진 2]는 주로 머테리얼 핸들링 (Material Handling)의 정밀도 · 효율 향상을 위한 것이고 ④상품외장 표시 내용의 표준화 ⑤ 표준물류 심벌 코드의 추진(ITF16) 예이다.

4.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

상기의 수치는 메이커 각사가 독자적으로 배송을 실시한 경우와 공동물류로 배송을 실시한 경우의 차량 대수 비교 즉 차량 대수 삭감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표 2]는 앞서 서술한 물류공동화 검토시의 공동물류 협력(1988년 중부 지역)의 실적이며 [표 3]는 최신(2001년 홋카이도 사업부 배송처 중 큰 거래처 세 사업소의 배송) 실적이다.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공동물류의 목적 중 하나인 자연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평가 지표 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차량적재율 향상 등 공동배송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코스트 감소 효과를 다음 회기의 요금에 반영(가격인하)하는 등 참가 메이커의 물류 합리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해 온 내용은 한 출자 기업·한 참가 메이커의 입장에서 한 발언이라 사견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비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용잡화 업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공동물류 실적 사례가 있고, 제삼자인 기관으로부터의 평가인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가 제정한 1995년도 로지스틱스 대상을 수상

했다. 또한 일간공업신문사가 제정한 1998년도 유통 시스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라넷트 물류(주)는 2002년 1월 다섯 번째 사업소로서 “남관동 사업부”를 개업하였다. 당사에서 처음으로 도시권 공동물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배양해 온 기술·노하우가 도시권에서도 통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멈출 줄 모르고 더욱 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 시스템·서비스의 내용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용잡화 업계의 공동물류 시스템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1835-9041~5